

실천적 측면에서 본 주거학 연구의 과제*

Practical Issues of Housing Studies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교 수 조 재 순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Prof. : Cho, Jae Soon

〈목 차〉

- | | |
|-----------------------|-----------------|
| I. 논문을 검토한 관점 | III. 주거학 연구의 과제 |
| II. 주거학 연구의 문제 및 개선방안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bring out some practical issues of housing studies published by Home Economics researchers since 1980. There were 299 articles related to housing in three major journals such a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and Housing Research Journal. It has been remarkable progress in terms of the quality as well as the number of articles during 20 years. However, this study could be brought out some research issues in the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aspects to improve the applicability of housing studies to dedicate family life and housing policies.

I. 논문을 검토한 관점

이 논문은 실천학문으로서의 가정관리 분야 연구의 사회적 기여와 평가를 하기 위해 가정관리분야에 속한 아동학, 가족학, 소비자학, 가족자원관리학, 주거학 등 다섯 영역이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의 일부로써 주거학 영역 연구를 분석한 것이다. 대주제는 가정관리분야 학과의 전문성과 실용학문으로서의 사회적 기여가 어느 때 보다도 크게 요구되는 현 교육

환경 속에서 실용학문으로서 실천적 지향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가정학의 하위학문분야인 가정관리분야에서 그 동안 이룩한 연구성과의 실천적 측면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설정되었다. 모든 영역이 연구를 검토하는데 공통적으로 삼은 실천적 관점은 유영주·강완숙(1996)이 제시한 가정관리분야 연구가 첫째, 과연 개별 가족이나 가정의 입장에서 생활향상과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는가 하는 것과 둘째, 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국가정책과 기

* 이 논문은 한국가정관리학회 1999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으며 수정·보완후 사독을 거쳤음.

업활동에 가정의 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되도록 하려는가하는 두 가지 점이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는 학문적, 사회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가정관리분야 전공자의 사회적 진출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학문적 발전을 위해 필히 거쳐야 할 과제라고 고려되었다(박명희, 1999).

검토 대상 연구물은 가정관리학회가 결성되어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던 1980년을 기점으로 그 후 20년간 발행된 한국가정관리학회지(1983년 창간호부터 1999년 17권 3호까지), 대한가정학회지(1980년 8권 1호부터 1999년 37권 11호까지)를 다른 네 영역과 공통으로 하고, 이에 한국주거학회지(1990년 창간호부터 1999년 10권 2호까지)를 더해 세 학회지에 실린 주거관련 논문 299편이다. 이 과정에서 각 대학의 교내 또는 연구소 학술지와 주거학 관련 타학회지, 예를 들면, 대한건축학회 논문집(1985년 창간), 실내디자인(1992년 창간), 주택연구(1993년 창간)에 실린 논문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논의하는 주거학 연구 결과가 가정학자에 의해 수행된 주거학 연구 전체에 관한 평가라고 할 수는 없으나 여기서 검토한 세 학회지가 가정학계열 주거학 연구가 게재된 주요학회지라고 보는 것에 대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목적은 주거학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과 실천적 성과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주거학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것의 개선 및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둘째, 주거학 연구의 실천적 성과는 무엇이며 가정학문의 한 영역으로서 주거학이 추구하는 실용적 연구방안은 무엇인가? 이다.

II. 주거학 연구의 문제 및 개선방안

지난 20년간 세 학회지에 실린 주거학 연구논문(한국가정관리학회지 36편, 대한가정학회지 132편, 한국주거학회지 131편) 299편을 대상으로 누가(연구자), 무엇을(연구 내용), 왜(필요성), 어떻게(연구 방법) 연구하였는가를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실천적 측면에서 주거학 연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연구자의 편향성

주거학 연구가 한 학교에 소속한 소수의 연구자 중심으로 주도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들의 연구 능력과 연구 인력, 그리고 연구 분위기가 초창기에 주거학이 뿌리내리고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주거학자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겠으나 이런 주도적 영향력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연구의 균형적인 발전이 지체될 우려를 낳게 된다. 예를 들면, 1990년 이전 10년 동안 연구비를 받아 연구한 논문 13편이 모두 한 학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1990년 이후 학술진흥재단을 제외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25편의 논문 가운데 18편이 같은 한 학교에서 이루어졌다(〈표 1〉 참조). 그러나 가정관리학회지에 실린 총 36편의 주거학 논문 중 이 학교 소속 연구자에 의한 것은 2편으로 타대학에 재직 중인 졸업생의 것을 포함하더라도 4편에 불과하며 이것도 1986년 이후에는 단 한편 뿐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

〈표 1〉 연구비지급 관련 기관별 연구비 수혜 논문수

| 연구비지급기관 | 연도 | | | | 계 |
|-------------|-----------|-----------|-----------|-----------|----------|
| | 1980~1984 | 1985~1989 | 1990~1994 | 1995~1999 | |
| 교 내 연구 비 | 0 | 0 | 6 | 18 | 24(32.4) |
| 학 술 진 흥 재 단 | 1 | 3 | 7 | 5 | 16(21.6) |
| 과 학 재 단 | 0 | 0 | 3 | 0 | 3(40.1) |
| 기 타 | 3 | 6 | 11 | 11 | 31(41.9) |
| 계 | 4(5.4) | 9(12.2) | 27(36.5) | 34(45.9) | 74(100) |

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 풍토에 속한 연구자는 주거학 연구가 가정관리 학문 분야에 속한다는 인식을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가정관리 분야 연구자와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한 학교에 집중된 연구의 편향성을 극복하여 각 지역과 대학 특성에 맞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서는 주거학 전공 대학원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수의 증가, 교내 연구비 수혜기회 확대, 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수혜자 확산 등에서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연구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자의 현실적 제약을 넘어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연구 사명을 수행할 책임이 요청된다고 본다.

2. 연구내용의 실용적 활용성 강화와 이론 구축 필요

학회지에 실린 연구 내용은 주거학 교육영역에 관

한 선행 연구(윤정숙, 1990; 윤정숙 팀, 1991)와 주거학 연구영역에 관한 선행 연구(윤정숙 팀, 1990; 황덕순 팀, 1995)를 참고하여 5개로 대분류 한 후 13개로 소분류하였다(〈표 2〉 참조).

첫째, 지난 20년간 주거학 논문이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고 내용적으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연구내용은 대분류의 총계에서 보면 이론적 성격이 강한 주거사회문화분야 연구가 4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실천적 성격이 큰 주거계획분야(22.4%), 주거의장분야(15.7%), 주거정책소비분야(11.7%), 주거교육연구분야(5.7%) 순이었다. 소분류에서는 주거가치, 주거요구, 생활양식, 주거의 질, 만족도 등을 포함하는 주거심리관련 연구(22.5%)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주생활재 디자인(12.7%), 주거사(12.0%), 실내공간계획(11.0%), 주거조절행동(10.0%) 등의 순이었다. 반면 10편 미만의 논문이 발표된 소분류도 디자인론, 주택정책, 주거상담 및 교육, 주거학 연구방법 등 4개나 있어서 분야별 논문수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연구 내용 분류

| 대분류 | 소분류 | N(%) | | | | 소계 | 총계 |
|----------------|-------------|---------------|---------------|---------------|---------------|------------|------------|
| | | 1980 ~1984 | 1985 ~1989 | 1990 ~1994 | 1995 ~1999 | | |
| 주거 의장 | 디자인론 | 1 | 3 | 3 | 2 | 9(3.0) | 47(15.7) |
| | 주생활재디자인 | 6 | 12 | 8 | 12 | 38(12.7) | |
| 주거 계획 | 주거실내환경 | 0 | 3 | 8 | 6 | 17(5.7) | 67(22.4) |
| | 실내공간계획 | 0 | 4 | 15 | 14 | 33(11.0) | |
| | 근린공간 및 시설계획 | 1 | 2 | 1 | 13 | 17(5.7) | |
| 주거 사회 문화 | 주거사 | 1 | 6 | 13 | 16 | 36(12.0) | 13.3(44.5) |
| | 주거심리 | 7 | 6 | 16 | 38 | 67(22.5) | |
| | 주거행동 | 2 | 7 | 14 | 7 | 30(10.0) | |
| 주거 정책 소비 | 주택관리 | 2 | 2 | 6 | 7 | 17(5.7) | 35(11.7) |
| | 주택경제 | 0 | 2 | 6 | 5 | 13(4.3) | |
| | 주택정책 | 0 | 1 | 2 | 2 | 5(1.7) | |
| 주거 교육 연구 | 주거상담 및 교육 | 0 | 1 | 3 | 4 | 8(2.7) | 17(5.7) |
| | 주거학 연구방법 | 0 | 1 | 4 | 4 | 9(3.0) | |
| 계 | | 20(6.7) | 50(16.7) | 99(33.1) | 130(43.5) | 299(100.0) | |

그러나 연구의 전반적인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에 도 불구하고 대부분 연구가 공통적으로 연구의 필요성이나 문제제기에서 가족의 주거 요구가 주택 공급 관련자에게 반영될 것과, 연구 결과가 주거계획, 주택공급, 주택정책 결정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을 연구목적이나 연구의 의의로 명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두승(1984)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료활용 대상이 되는 인접 학문의 주요 관심사에 관련된 변수 선정이 여전히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 해석이나 결론 및 논의에서도 실제적인 활용을 위한 설명이 전혀 없거나 혹은 매우 간략하게 언급된 경우가 많았고 때로는 연구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을 제안한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인접학문에서 볼 때는(이선옥, 1995) 가정학자의 주거학 연구가 이론적 배경 정리나 자료 분석에는 비교적 충실하나 구체적이지 못한 것이 있으며 주택계획이나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만한 결과 제시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성향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고 연구결과와 실용적 활용을 위한 논의나 제언을 구체적,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주거학 연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실천적 연구의 기초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적 특수성을 살린 한국가족의 주거생활에 관한 이론구축을 위한 이론적 연구 노력이 미흡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이 분야의 연구가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 분야별로 실천적 연구성과를 이루었다고 지적할 만한 연구 중에는 주생활재 디자인에서 부엌 작업대와 표준치수 설정, 침실용 불박이 가구, 신발장 등의 사용실태 분석에 기초하여 생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모델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를 들 수 있다. 아울러 공학적 배경을 가진 실내환경연구는 물리적 열환경을 측정하는 실험실내의 실험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재실자의 주관적 쾌적감을 측정하여 가정학 연구의 강점을 발휘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한편, 삼대 동거가족을 위한 주거연구와 공동주택 관리방안연구도 한국적 특수주거 상황에 맞는 연구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거 이동이나 개조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행동 연구는 주제가 명료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이사나 임대료 급상승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문제, 불법 주택개조 등 현실 사회문제와 결부시키거나 이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주로 행동 관련 요소파악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많았다. 주거상담교육 연구는 연구성과를 일반 가정의 생활향상과 문제해결에 빠르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앞으로 연구 필요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1995년 이후 교외 연구비를 받아 수행한 16편의 연구 내용을 보면 부엌 가구, 부엌 기기, 냉난방용 에어컨 등 주생활재 수요예측 관련 4편, 노인 주거시설, 아동놀이시설, 유치원, 주민공유공간 등 근린 공간 및 시설계획 관련 6편, 특정 지역의 신규주택이나 신소재로 건축한 주택에 대한 요구 관련 3편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 내용이 구체적이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정보 파악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특징인데 연구결과의 활용성이 큰 주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결과와 적용성을 염두에 두고 실용적인 주제를 선정하되 이러한 연구에서 부족되기 쉬운 철저한 선행연구 고찰, 주요 개념의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 적절한 연구방법 적용 등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단편적인 연구결과를 선행 연구결과에 비추어 평가하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험적 일반화 작업을 통해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개별 가정의 요구와 필요가 국가정책과 기업활동에 전달되고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연구가 미미했던 거시적 측면의 주택경제, 주거정책도 연구자의 관심이 요망되는 내용이다.

3. 연구 필요성에 나타난 실천성의 구체화 부족

연구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흔히 산업화, 주택 부족, 아파트 위주의 주택정책, 공간에 대응하는 주행동 등 주거문제 일반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여 주거계획이나 주거정책 등에 가족의 주거 요구가 반영되도록 한다는

식의 포괄적이고 정형화된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나타난 설명으로 본다면 주거학 연구는 상당히 실용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나 문제에 맞춰 좀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이와 직접 관련된 이론이나 문헌을 중심으로 구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이론적 체계를 구성하고 연구 결과가 기존 연구를 어떻게 보완시킬 것인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주요 개념에 대한 용어 정의뿐만 아니라 조작적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후속 연구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될 것이다. 연구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의 필요성에서 제시한 바에 맞게 논의나 제언을 일치시킴으로써 개별가족의 생활향상과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 정책이나 기업활동에 반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자료분석의 약점

자료수집 방법 및 자료분석에는 통계적 방법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여 연구 내용에 맞는 대상을 신중하게 정하여 이를 경험적으로 관찰·측정하고 논리적으로 일정한 관계의 규칙성을 발견하여 설명하는 과정이 해당한다.

첫째, 주거학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수집방법의 특

징은 연구주제에 따라 비교적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가장 많이 쓰인 것은 질문지조사법(64.6%)이었다(〈표 3〉 참조).

자료수집 방법으로 문헌연구법은 이론적 고찰이나 사적 문헌 고찰에 쓰인 반면, 내용 분석법은 신문 기사의 주거관련 특정 내용이나 주택평면도면 혹은 실내 사진의 내용을 분석하는 데 이용되었다. 전통주택 연구는 주로 현지 연구법을 사용하여 평면구성, 재료, 공간사용, 생활용품 등을 면담, 관찰, 실측,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연구하였다. 실험 연구법은 주로 실험실에서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열환경에 대한 반응, 계단 높이, 부엌 작업대 높이 등을 실험하는 데 쓰였다. 한편 최근 들어 이용이 활발해지는 2차 자료는 연구소나 정부기관이 질문지조사법을 통해 수집한 원자료나 표로 정리된 자료를 말하는데, 이를 이용할 경우 연구비용과 시간이 절감됨과 동시에 표집수와 조사지역이 커서 개인 연구자가 실행하기 어려운 표집방법을 적용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는 연구정보 공유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이러한 2차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둘째, 주거학 연구자료 수집방법의 주류인 질문지조사법에 대해서는 측정도구, 조사대상자, 조사지역, 표집, 분석방법 등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질문지 조사법의 측정 도구는 주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주요 개념에 대한 질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

〈표 3〉 연구자료 수집방법

| 수집방법 | N(%) | | | | 계 |
|--------|-----------|-----------|-----------|-----------|-----------|
| | 1980~1984 | 1985~1989 | 1990~1994 | 1995~1999 | |
| 문헌 고찰법 | 5 | 6 | 13 | 6 | 30(10.0) |
| 내용 분석법 | 0 | 3 | 9 | 12 | 24(8.0) |
| 현지 연구법 | 0 | 2 | 10 | 11 | 23(7.7) |
| 실험 연구법 | 2 | 3 | 5 | 5 | 15(5.0) |
| 2차자료이용 | 0 | 0 | 2 | 12 | 14(4.7) |
| 질문지조사법 | 13 | 36 | 60 | 84 | 193(64.6) |
| 계 | 20(6.7) | 50(16.7) | 99(33.1) | 130(43.5) | 299(100) |

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주요 개념은 이와 직접 관련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용어 및 그 정의를 도출해 내고, 연구에 직접 사용된 조작적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논문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는 데 연구자의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질문조사법의 조사 대상은 주부, 학부모, 불특정 가구원 등 다양하였으나 사실상 65%정도가 주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표 4) 참조). 한편, 조사대상을 언급하지 않았거나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주거가치, 인식, 요구, 평가 등과 같은 연구 내용은 가족원 중 누가 응답했느냐에 따라 가족원간 응답 내용이 같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응답자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 논문에서 가족원을 2인 이상 조사한 경우는 193편의 질문지 조사 연구 중 5편 뿐이었는데 연구 내용에 따라 예를 들면, 주택 난방온도에 대한 반응,

거실공간 사용빈도, 생활행위 등은 주부보다 혹은 주부와 함께 유아나 노인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현실적인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조사지역은 절반 이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표 5) 참조). 지역간 주택 사정이 크게 다르다는 주택시장의 특성에 비춰 볼 때(이경희 팀, 1993), 서울 중심의 연구결과를 다른 도시 지역이나 전국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정 지역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외국 지역연구는 덴마크, 스웨덴, 벨지움, 중국연변 조선족, 미국, 일본 등에 관한 것으로 주로 연구자의 방문이나 유학기간동안 이루어진 것으로서 우리 나라에의 적용논의나 문화간 비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세계화 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 국제적 연구교류가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표집에서 조사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유

〈표 4〉 설문조사 응답자

| 응답자 | | | | | N(%) |
|--------------------------------|-----------|-----------|-----------|-----------|----------|
| | 1980~1984 | 1985~1989 | 1990~1994 | 1995~1999 | 계 |
| 주 부 | 4 | 5 | 23 | 34 | 66(34.2) |
| 학부모 | 5 | 8 | 9 | 8 | 30(15.5) |
| 가구원 아무나 | 2 | 6 | 9 | 13 | 30(15.5) |
| 노인·청소년 ·아동·대학생 | 1 | 4 | 8 | 15 | 28(14.5) |
| 신세대, 기혼·미혼자 | 0 | 0 | 2 | 3 | 5(2.6) |
| 가족원 2인 (시모+주부, 초·중아들+부모) | 0 | 3 | 1 | 0 | 4(2.1) |
| 가족원 3인 (조부모+모+손자녀) | 0 | 0 | 0 | 1 | 1(0.5) |
| 비가족원 | 0 | 2 | 2 | 7 | 11(5.7) |
| 기타(여대생, 주부, 아동, 교사) | 0 | 1 | 0 | 1 | 2(1.0) |
| 언급 없음 | 1 | 7 | 6 | 2 | 16(8.3) |
| 계 | 13(6.8) | 36(18.6) | 60(31.1) | 84(43.5) | 193(100) |

〈표 5〉 설문조사지역

| 설문조사지역 | | | | | N(%) |
|-------------|---------------|---------------|---------------|---------------|-----------|
| | 1980 ~1984 | 1985 ~1989 | 1990 ~1994 | 1995 ~1999 | 계 |
| 서울 | 8 | 41 | 22 | 25 | 76 (39.2) |
| 서울+1개 지역 | 0 | 4 | 6 | 5 | 15 (7.8) |
| 서울+2개 이상 지역 | 0 | 1 | 4 | 4 | 9 (4.7) |
| 수도권 | 0 | 1 | 4 | 6 | 11 (5.7) |
| 대도시(서울 제외) | 2 | 5 | 13 | 11 | 31 (16.1) |
| 중도시 이하 | 1 | 2 | 6 | 17 | 26 (13.5) |
| 2개지방 이상 | 0 | 0 | 3 | 7 | 10 (5.2) |
| 외국 | 2 | 0 | 2 | 7 | 11 (5.7) |
| 언급 없음 | 0 | 2 | 0 | 2 | 4 (2.1) |
| 계 | 13(6.7) | 36(18.7) | 60(31.1) | 84(43.5) | 193(100) |

〈표 6〉 표집시 주택유형 제한

| 주택유형 | | | | | N(%) |
|-----------|-----------|-----------|-----------|-----------|----------|
| | 1980~1984 | 1985~1989 | 1990~1994 | 1995~1999 | 계 |
| 어느 주택유형이나 | 4 | 15 | 26 | 44 | 89(46.1) |
| 아파트만 | 4 | 9 | 26 | 24 | 63(32.6) |
| 단독주택만 | 3 | 2 | 1 | | 6(3.1) |
| 양로원 | | 1 | | | 1(0.5) |
| 언급 없음 | 2 | 9 | 7 | 16 | 34(17.6) |
| 계 | 13 | 36(18.7) | 60(31.1) | 84(43.5) | 193(100) |

형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가 46.1%이긴 하지만 특정 주택유형,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자만을 조사한 연구가 다수 있었다(〈표 6〉 참조). 주택유형에 대한 언급이 없는 연구도 17.6% 있었는데 주택유형이 거주자의 여러 사회 인구학적, 경제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하기 위해 응답자의 주택유형을 통제했는가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표집에는 표집크기와 표집방법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었다. 표집크기는 50미만부터 1,000 이상까지 분포가 컸으며, 200-299명이 가장 많았다

(〈표 7〉 참조). 표집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집크기와 함께 표집방법이 중요한데 표집방법은 간혹 소득계층이나 지역분포를 의도적으로 고려한 것도 있지만 대체로 연구자 임의로 편의표집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표집방법을 실제와 틀리게 예를 들면, 편의표집이나 의도표집한 것을 무작위 표집이라고 밝힌 연구도 적지 않았다. 회수율과 회수된 질문지의 유효율이 낮은 것도 연구대상 선정과 측정도구 문제와 더불어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한 연구에서는 1,000가구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872부 회수했으며 응답이 부실한 것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서

〈표 7〉 설문조사 표집크기

| 표집 크기 | | | | | N(%) |
|-----------|-----------|-----------|-----------|-----------|----------|
| | 1980~1984 | 1985~1989 | 1990~1994 | 1995~1999 | 계 |
| 99 이하 | 0 | 3 | 6 | 3 | 12(6.2) |
| 100 ~ 199 | 2 | 8 | 10 | 17 | 37(19.2) |
| 200 ~ 299 | 3 | 5 | 18 | 17 | 43(22.5) |
| 300 ~ 399 | 4 | 7 | 7 | 14 | 32(16.6) |
| 400 ~ 499 | 1 | 5 | 5 | 12 | 23(11.9) |
| 500 ~ 999 | 3 | 2 | 8 | 16 | 29(15.0) |
| 1000 이상 | 0 | 6 | 6 | 5 | 17(8.8) |
| 계 | 13(6.7) | 36(18.7) | 60(31.1) | 84(43.5) | 193(100) |

〈표 8〉 설문조사 자료분석방법

| 자료분석방법 | | | | | N(%) |
|-------------------------|-----------|-----------|-----------|-----------|----------|
| | 1980~1984 | 1985~1989 | 1990~1994 | 1995~1999 | 계 |
| 빈도(%) | 0 | 3 | 9 | 8 | 20(10.4) |
| 평균 | 0 | 1 | 1 | 2 | 4(2.1) |
| 상관관계, t-검증 | 0 | 0 | 1 | 3 | 4(2.1) |
| 교차분석 | 2 | 2 | 7 | 12 | 23(11.9) |
| 일원변량분석 | 2 | 1 | 4 | 3 | 10(5.2) |
| ANOVA+추후검증 | 0 | 2 | 1 | 5 | 8(4.1) |
| 요인분석 | 2 | 3 | 4 | 2 | 11(5.7) |
| 2가지 이상 | 4 | 12 | 10 | 20 | 46(23.8) |
| 다중회귀분석 | 2 | 9 | 20 | 22 | 53(27.8) |
| 경로분석 | 1 | 3 | 2 | 3 | 9(4.7) |
| Lisrel, Logit, Logistic | 0 | 0 | 1 | 4 | 5(2.6) |
| 계 | 13(6.7) | 36(18.7) | 60(31.1) | 84(43.5) | 193(100) |

사용한 것은 696부이었다. 연구 결과간의 비교나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통한 이론과 모형 구축을 위해서는 표집방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적용이 요구된다고 본다.

일곱째,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에서는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이 쓰이고 있었으나 각 변수의 단순 분포나 두 변수간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기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연구가 64.9%이었다(〈표 8〉 참조). 사회현상으로 나타나는 두 변수간의 관계는 허위적일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Rosenberg, 1968) 제3의 변수를 통제한 후 사실적 관계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7.8%의 논문에서 다중회귀분석이 쓰이고 있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종속변수가 비연속적인 경우에는 Logit, Logistic, Tobit 등을 이용하여 통상최소자승(OLS)추정법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바람직한 시도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변량분석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 반면 외생변수 없이 내생변수들로만 경로 모형을 제시한 경우와 같이 분석 방법을 잘못 적용한 경우도 소수 볼 수 있었다.

III. 주거학 연구의 과제

이상과 같이 지난 20년간 수행된 주거학 연구를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미시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실용 학문으로서 주거학이 본연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주거학 연구는 거의 모두 연구의 필요성에서 실용적 자료로 활용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론중심 연구 과제의 실용적 적용과 실천중심 연구결과의 이론 체계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이론적 연구는 연구결과에 바탕을 두고 실용적 활용을 위한 논의나 제언을 구체적, 적극적으로 함과 아울러 실천적 연구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이론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공동체적 삶의 구현을 위해 한 가족을 위한 삶의 공간에 대한 주거의 연구범위를 공동시설, 지역환경진단 및 문제 해결 등과 같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공간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대도시 중산층 가정 중심의 연구대상을 복지적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과 소외 계층, 비정통적 가족 등으로 연구대상과 주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 부분임차구나 장애인 및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안정, 농촌지역 노인의 주생활, 위험물 매설지역이나 그린벨트 지역, 비행장 및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변의 거주성 문제 등을 다룸으로써 주거학 연구가 가족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국가의 복지정책 자료로써 그 활용성이 커질 것이다.

넷째, 연구결과의 일반화와 이론구축을 위한 연구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하며 한편 주거생활의 실제적 변화와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종단적 자료구축과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설문 조사에 의한 연구 193편은 모두 한 시점에 조사된 횡단자료이었다.

다섯째, 연구의 실용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결과를 연구자가 속한 대학 밖의 사회참여 활동과 대학의 지역정보센터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로 활용하고,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다시 연구 주제로 환원

함으로써 주거학 연구와 활동 현장간의 연계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연구가 확대되고 전문화할수록 주거생활을 개인과 가족생활에 총체적으로 통합하여 구명할 수 있는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참고 문헌】

- 박명희(1999). 가정관리분야 연구, 과연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가?. 제26차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학술대회 주제강연.
- 유영주·강완숙(1996). 가정학의 반성적 고찰: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한 시론 I. 대한가정학회지 34(3): 1-8.
- 윤정숙(1990). 사회변천에 따른 주거학의 영역. 대한가정학회지 28(4): 34-35.
- 윤정숙·홍형욱·이경희(1990). 주거학분야. 대한가정학회의 가정학 연구의 최신정보 III: 가정학, 소비자학, 주거학. 교문사: 176-214.
- 윤정숙·김선중·박경옥·조재순(1991). 주거학 교육과정의 모형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29(1): 111-124.
- 이경희·윤정숙·홍형욱(1993). 주거학개설. 서울: 문운당
- 이선옥(1995). 대도시 집합주택 거주자의 주거 공간 규범에 관한 연구: 대도시 및 3LDK 거주자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재순·김선미(1995). 체계와 기능: 사회이론 구성을 위한 개념모델. 서울: 한올아카데미.
- 홍두승(1984). 가정학 연구의 방법론적 과제. 대한가정학회지 22(4): 193-194.
- 황덕순·한경미·홍은실(1995). 가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한가정학회지 논문내용분석: 1959년부터 1994년까지. 대한가정학회지 33(3): 17-30.
- Rosenberg, M.(1968). *The Logic of Survey Analysis*.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